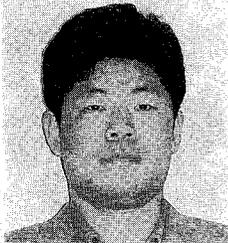


산란계 중추관리의 중요성



김 정 민
우화농장 대표

이면서도 사양관리는 아직 제자리 거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계조작 미숙에 환기불량 등 수 많은 농장들의 피해에 대한 뒷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동화에 대한 피해가 얼마만큼 큰가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 만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부합해 중추사육시설도 규모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중추관리를 위해 체중관리 및 사료급이 시스템을 개발, 농장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추를 한두 번쯤 사육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육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급여, 체중조절, 질병 및 방역 등 한가지라도 소홀히 다룰 경우 성계 생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산란기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육추육성이다. 즉, 육추육성의 80%이상이 채란 생산성의 승패를 판가름한다.

육성시의 체중관리는 우량 육성추의 척도이고 잣대이기에 중추구입시 누구나 체중을 따진다.

따라서 중추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필자는 농가에서 알고 있는 기본상식 이지만 반드시 되짚고 넘어가야 할 체중관리 등 중추관리 요령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양계장의 환경이다.

육추 육성사 뿐만 아니라, 산란계사도 사양관리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사양계사가 여러 계군일 경우 그중 매회 성적이 높

19 89년부터 계분 처리와 인력수급 문제 등의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고밀도 사육 등 양계 자동화 시설 규모가 놀랄 만큼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시설은 선진형

개체별 체중증가

체중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계열 1	55	57	65	71	74	85	85	86	104	110	117	124	134	143	149
계열 2	54	56	65	70	78	80	80	86	100	107	115	121	130	139	144
계열 3	51	55	63	70	80	86	85	88	95	100	105	102	106	113	116
계열 4	45	49	50	54	59	57	63	67	73	75	85	89	91	101	108
계열 5	50	55	60	65	72	79	76	81	90	97	102	102	105	115	120
계열 6	53	57	63	72	79	87	93	94	105	115	127	133	142	150	165
계열 7	51	56	64	70	75	84	90	94	110	116	127	130	146	154	155
계열 8	50	55	67	71	76	80	81	90	100	107	111	115	117	121	135
계열 9	50	54	60	66	72	79	85	85	98	101	110	117	121	123	132
계열 10	54	56	63	66	71	78	80	83	95	103	106	115	123	140	142

△ 10수를 샘플로 4일령부터 매일 1일 측정하여 20일령까지 측정하였다. 6일 부리자르기하여 균일도가 낮아지고 어린 일령에 체중순위가 50일령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은 계군이 있다.

근접된 계사와 바람의 방향 등 자연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환기방법을 개선한다. 무창계사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병계도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 회복된다. 성계와 같이 지역에 있는 농장이면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일지라도 육성사를 보호해야 한다. 50일령 미만의 육성 추는 태풍아래 촛불인 것이다.

둘째, 철저한 올인 올 아웃 실시이다.

올인 올 아웃은 주의에 있는 모든 계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10동 중 1동만 남아도 올인 올 아웃이 될 수 없다.

올인 올 아웃시 농장내에 있는 닭의 부산물

을 제거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올인 올 아웃을 시행하면 매회 성적이 향상된다. 그것은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이다.

셋째, 입추사의 청결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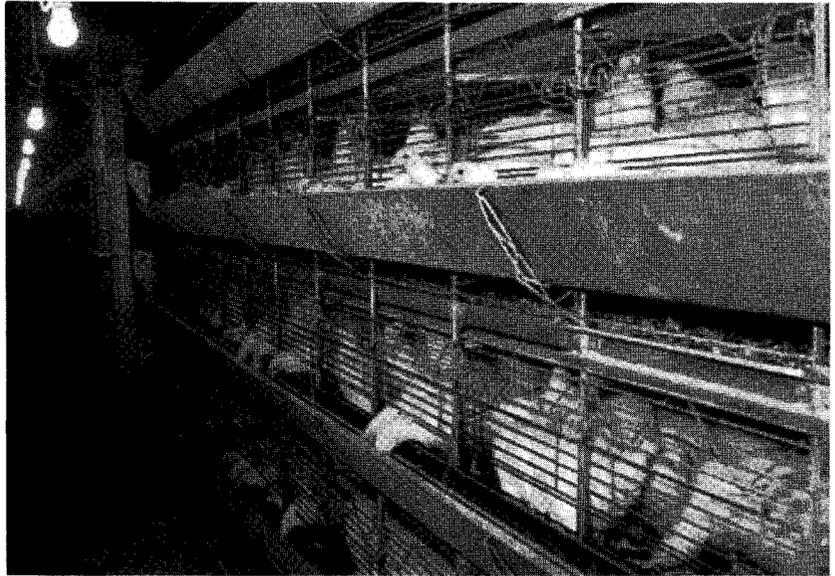
오래된 계사일수록 육성율이 나빠진다. 아무리 청소하고 소독해도 부족함이 있다. 냄새나고 더러우면 청소와 소독방법을 바꾸고 입추시기를 늦추어 보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청소하고 오래 쉬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기도 하다.

넷째, 초생추의 품질이다.

사육관리가 잘되는 종계장과 부화장을 선택하고, 강하고 면적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여

예방 접종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계일령은 가능한 32주령부터 64주령 까지 (산란 피크 중)의 기간에서 사육되고있는 종계를 선택하고, 초생추의 체중은 37g 이상과 균일도 높은 초생추를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부하장의 운송방법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동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 등은 육성중 폐사율을 높이고 결국, 체중과 균일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섯째, 최소 50일령까지 치밀한 사육관리를 세워야 한다.

입추시 사육밀도, 온도, 습도, 음수, 사료, 방역, 예방과 방법 등 사육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초기 일령시 습도는 온도만큼 중요하다 습도가 부족하면 초기건강에 치명적이다.

입추전 환기장치 및 급수 사료공급 장치 등을 점검하고 온도와 습도를 올리고 초생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1일부터 50일 까지 체중을 제1의 목표로 축사에 맞는 사육지침서를 세우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신이 양계장에서 닭과 함께 동거하면 어떨까! 예전 육성 중에는 식사를 배달 받아 가며 몇 주간 밤을 세우고 짚위에서 함께 자기도 하

며 동거를 했었다. 내 아기 기르듯이.....

여섯째, 50일 이후부터 2단계 체중관리 계획을 세운다.

육성중 50일까지의 체중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50일까지는 당일 섭취량을 뺀 나머지가 표준보다 10%이상 오르도록 하고, 60일 이후 표준에 가깝도록 맞추어야 한다.

1일령부터 매주 체중 체크하여 3~6주까지의 체중곡선을 기본으로 산란 전까지 체중곡선을 계획한다.

미달되면 미달된 만큼 체중곡선에 맞추고 그 곡선에 맞게 육성되어야 한다.

골격발육은 12주면 완성이 된다. 4~6주 체중을 무시하고 대추관리를 하면 산란기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과다체중은 체중미달 만큼이나 나쁜 육성추이다, 결국 과다섭취와 지방계 등 각종 질병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면역은 1일령부터 25일령 까지 모계면역항체가 서서히 줄기 시작하여 22일령 이면 바닥까지 도달하여 다시 55일령 이후면 정상까지 도달한다.

물론 백신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와 같다. 자신의 농장에 맞는 백신방법을 수의사와 상의하여 세우도록 하자

이같이 채란계에 있어 4~5주의 육성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시하여야 한다.

대부분 4~6주경에 체중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가 닭의 사춘기이므로 옆에 무엇이든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가장 민감한 시기임으로 충분한 활동 공간을 주어야한다.

어린 일령의 백신후유증과 부리 자르기 등으로 체중관리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다. 또한 호흡기나 클리닝 등을 하여 항생제를 투약하고 각종 영양제와 스트레스제 등 무수한 약들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면 식욕을 떨어뜨려 섭취량이 줄어들기도 하며 수만은 투약과 더불어 항생제 남용으로 오히려 스트레스와 항병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체중미달로 이어지고, 과다한 점등량과 전등밝기를 더 주기도하지만 사료 섭취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산란전의 체중 목표를 어린일령에 두고 초기 사육시 당일 사료와 음수 등을 시간별로 체크하고 계군상태를 지켜보아야 한다

누구나 증추구입시의 체중을 따지지만 대부분 70일령 이상부터 유통되기에 50일령 이하의 체중과 균일도를 미루어 보기 어렵다.

증추 구입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육성전문 농장을 선택하고 역가 상태와 4~6주 체중과 균일도, 각종 백신 및 항생제 투여와 폐사상태

등 사용자가 꼼꼼하게 기록한 사육일지를 받아 산란시 관리에 기초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인해 육성농장의 발전과 더불어 산란능력 향상에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IMF의 파도를 타고 각종 농산물 수입 등 점점 산증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만 하나 하며 허탈감에 지난날들을 뒤돌아보게 된다.

채란업계는 1999년 전반기까지 수년간 경기가 좋았다. 그리하여 경쟁적으로 규모를 늘려왔다.

자동화시설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한 농장은 생산 원가가 높다. 자연적으로 파산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런가 하면 부채 굴레에 허덕이며 입추와 도태를 설새없이 반복하기도 한다.

최신 시설농장이 도산하면 3자가 인수하고 가족단위 소규모 농장은 경쟁력 약화로 소비위축 등 현실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금년 여름에는 가금티푸스 해결 기미도 보이고 있어 10%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기도한다. 앞으로 고난가 시대는 끝났다. 난가 상승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부르기 때문이다. 현재 종계장, 부화장 채란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화상태이다.

우리가 합심하기보다는 힘 겨루기에 서로를 무너트리려 한다.

이제는 우수한 육성으로부터, 건강한 닭을, 건강한 닭으로부터 항생제가 없는 신선한 계란을 생산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유통개념의 선진화로 소비자 의식을 바꾸어 수입에 대비하며 계란 우수성을 알리어 소비를 촉진시키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합심하여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양계**